

광주 58개 중학교, 日제품 불매운동 동참

서부중등학생의회 “역사 바로알기 기회 되길”



18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광주 58개 중학교 학생의회 의원 65명을 비롯한 지도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9서부중등학생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원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58개 중학교가 모인 광주 서부중등학생의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8

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58개 중학교 학생의회 의원 65명을 비롯한 지도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9서부중

등학생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사전에 안전 제안을 받아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장단의 사전 안전 협의를 거쳐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제3회 학생의회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진행했다.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원들은 일본이 과거 만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에 국민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의·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선정된 실천 방안으로 '위안부 할머니께 편지쓰기', '무심히 사용하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꿔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는 팔찌 나눠 주기'가 채택됐다.

광주 서부지역 내 중학교에선 3

가지 내용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중학교 의회(서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성훈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장(서광중 3)은 "학생의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층 토의를 통해 결정한 실천 방안들이 각 학교에서 실천돼 역사 바로알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의회에서 도출한 회의 결과와 실천과제를 학교교육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부 지역 내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에 참여한 58개 중학교 학생 수는 올해 3월 기준 2만 9672명이다.

만취 상태 예인선 운항 60대 선장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6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3분쯤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매립장 앞 해상에서 134톤급 예인선 J호(승선원 4명)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출항지에서부터 약 8.3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항만VTS는 J호가 출항 직후 급격한 지그재그 운항과 항로 이탈 현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해경에 연락했고, 해경은 광양 금호동 앞 해상에서 J호를 멈추게 한 후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선장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음주운항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강수력발전소 발전기 불·자체진화

19일 오전 5시29분쯤 보성군 득량면 보성강수력발전소 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불을 발견한 발전소 운전원이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10여분 만에 불을 꺾었다.

이 불로 발전소 내 2개 발전기 중 1개의 모터가 일부 불에 그을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소방당국과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발전기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발전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경찰 수사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모 종합병원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29)가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망 15일 전인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포스코 아파트 신축 공사장 내 3m높이에서 추락해 허리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혈성 폐색전증'으로 알려졌다.

폐혈증은 균에 의해 감염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경찰은 업체 측 사고 과실에 이어 A씨가 치료 도중 숨진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뺑소니' 외국인 불법체류자 해외 도피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사경을 헤매게 만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 외국인의 신원을 사고 이틀 뒤 파악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신속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장모군(8)이 승용차에 치였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급히 병원에 옮겨진 장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운전자 추적에 나섰다. 차량이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백인 계열이다"는 등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불법체류자로 추측할 뿐이었다.

탐문수사를 거쳐 경찰은 18일 오후 2시30분에야 피의자를 특정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였다. 그러나 이미 A씨는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낸 후 해외 도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강원도 산불피해지 나무심기 19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열린 '강원도 고성 산림생태복원의 숲 조성' 행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 등 참석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최근 5년간 출동현장서 폭행당한 소방관 '1051명'

최근 5년간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한 소방관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가해자 구속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총 105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명, 2015년 222명, 2016년 226명, 2017년

210명이었고 지난해는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237명(2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3명(21%), 인천 58명(6%) 순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 83명(8%), 경북 62명(6%), 강원 56명(5%) 순으로 파악됐다.

폭행 피해는 하위계급일수록 많았다. 군복무 대체인원인 의무소방대원의 피해도 30명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최근 5년간 총 717명 중 주취자가 606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아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3년간 노인 학대 1632건 발생

재학대도 194건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노인 학대 의심신고가 3721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노인 학대로 인정된 것은 1632건, 재학대는 194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노인 학대 의심 건수는 4만8000건이다.

이중 노인 학대로 판정된 것은 1만4090건이었다.

광주는 2016년 485건, 2017년 562건, 2018년 548건 등 1595건의 노인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노인 학대로 인정된 것은 2016년 229건, 2017년 240건, 2018년 202건 등 671건이었다.

전남은 2016년 678건, 2017년 701건, 2018년 747건 등 2126건의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노인 학대로 인정된 것은 2016년 298건, 2017년 326건, 2018년 337건 등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노인을 재학대하는 경우도 광주 52건, 전남 142건 등 194건에 달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